

데스크시각

김주정



데스크에 놓아둔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가부도 위기를 다룬해 이겨낸 1년이었다. 세계 경제가 아직 더 볼 위협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내년엔 더 나은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반갑다.

그렇다고 걱정이 없는 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바꾸겠다고 추진해온 대형 프로젝트들이 하나 둘 빛이 바래가고 있어서다.

프로젝트마다 차질

김대중 정권시절 구상된 J프로젝트를 보자. 아직 첫 삽도 못 뚫다. 일부 투자자마저 이탈해 서남해안인 과연 레저관광의 중심이 되기는 하는 건지 묻는 사람이 많았다. 여수엑스포도 민간자본의 기피로 손님이 목을 숙박시설을 찾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는 진척이 더더 입주 공공기관들의 이전 취소 로비설이 떠돌 정도다. 광주문화수도의 핵심이 될 국립문화의 전당도 옛 도청

별관 철거 논란 끝에 완공시기가 늦춰졌다. 이유는 많다. 무엇보다 지역균형발전이 국정의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 혁신도시 흥들기, 수도권 규제완화, 세종시 수정 등 말이 잇따르고 있다. 반갑다.

민선 4기 4년 MB 정권 2년

일련의 정책 추진은 지방 숙원사업을 흔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파괴력이 컸다. 불황으로 흔들도 말았다. 지역 역량에 비해 프로젝트가 너무 컸다는 지적도 있다. 일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했다. 지역 경제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자동차·석유화학·철강 같은 지역의 주요 생산품이 많게는 50% 가깝게 전년보다 수출이 급감했다. 회복세로 돌아섰던 소비심리마저 꺾였다. 건설업계는 무더기 세무조사에 잔뜩 움츠러들었고, 제조업계엔 아직 인력감축

의 회오리 바람이 거세다. 민선 4기 4년, MB정권 2년, 금융위기 1년을 보낸 광주·전남이 처한 현실이다. 중앙에선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빨리 위기에서 탈출했다며 풀었던 돈을 언제 회수할지 고민이지만, 지역에선 여기저기서 돈 구하느라 난다.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 백지화 논란을 보는 마음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 여야 합·국회 동· 대통령 공약을 뒤집는 마당에 혁신도시 정도는 손쉽게 되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글로벌 경제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수도를 분할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뜻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표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니까 잘못을 알고도 눈감았던 지난 일을 고치겠다는 식이면 곤란하다. 균형발전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글로벌 명제는 아직 유효하다. 수도권에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세종시 수정론' 자체를 표를 의식하지 않고 내놓을 수 없는 정치행위다.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3년 후에 치러야 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

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표 대결하도록 정치지형을 바꿀 수 있다. 수도권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 이슈보다는 지역 이권에 집착하는 표 성향을 충분히 보여줬다. 국토 균형발전이 앞으로도 국정의 앞순위로 올라오기 힘들다는 의미다. 경제계까지도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경계하는 마당에 지나친 '표 우선주의'가 경제를 망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출마선언 안 하면 무죄?

더 큰 걱정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대책이나 세력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지방에 권한과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할 관련권 개헌은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아니다. 효율성만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를 더 잘게 쪼개려고 하면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자치권 확대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신명 쓰는 것은 따로 있는 듯하다. 지방 자치 선거다. 출마 수배를 비추지 않으면 '부처(looser)'라고 할 만큼 뜻은 세운 정치인들이 많다. 하지만, 수도권 공화국에서 지방이 살 길을 제시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는다. 자리다툼만 요란하다. 답답하다. 지금이라도 지역비전 마련을 위한 거대담론을 시작하라.

<경제부장> jinews@kwangju.co.kr

시설

F1 대회 성공개최 위해 지역 역량 모아야

내년 10월로 예정된 영암 F1대회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 예산안에 누락됐던 F1 경주장 건설비용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국회 문방위 예산심사소위는 1일 F1경주장 건설비용 880억원과 경주장 진입도로 건설비용 87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F1경주장 건설비용 예산안이 문방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돼 차질없는 대회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대회 유치에서부터 소요 사업비 확보, 관련법 제정 등 유여곡절 끝에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개최의 주사위가 던져진 셈이다. F1 대회 개최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내년 6월 말까지 경기장 건설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인프라 구축 외에도 성공 개최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F1 대회 붐 조성이 시급하다. 전세계에서 6억명이 시청하는 F1 대회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히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분위기가 뜨겁지 않다. 흥행 없이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없는 만큼 지금부터라도 대대적인 붐 조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대회기간 동안 관람객 수가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숙박과 교통 시설 등은 매우 열악하다. 무안공항 국제선 활로 확대와 경기장 인근 도로 확장, KTX 연계 등 광역교통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내 유명 관광지 등을 둘러보고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관광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경기장의 사후 활용방안에 대한 특별한 대책도 필수적이다. F1은 낙후된 전남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다. 성공 개최를 위해 지역의 역량을 한곳에 모아야 할 때다.

단체장 때문에 위장전입 단속 안한다니

광주시내 일선 구청들이 위장전입 단속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위장전입 단속을 요청했으나 단체장 눈치를 보느라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장전입 단속이 현역 단체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심지어 광주시의 한 구청에서는 전입 담당자가 구청장 주재 회의에서 '위장전입 단속 대책안'을 내놓았다가 주위로부터 "보유기도 파악 못 한다"며 눈총을 받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공무원 사이에 위장전입을 단속 해봤자 단체장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사교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이는 비단 광주시에만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다. 각종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위장전입의 속내를 알만하다. 만약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인 명부

작성 180일 전부터 선거인 명부 작성 완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해 허위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위장전입은 엄중한 불법행위인 것이다. 그럼에도 단체장 때문에 이를 단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의 녹을 먹는 공직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공무원인 단체장을 위한 공무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장전입은 온갖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다. 부정선거 수단 외에도 부동산 투기, 자녀 학교 부정권입, 쌀 직불금 부당수령 등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회악인' 셈이다. 위장전입에 대한 형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위장전입을 알고도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도 직무유기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 불법행위를 버섯이 알면서도 눈을 감는 것은 스스로 공직자임을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기고



구희언

요즘 TV 광고 중에 눈에 띄는 한 광고가 있다. 항공사 광고 중, 몇 들어진 중국 풍광을 보여주며 중국어 카피를 들려준다. 중국 여행은 자신의 항공사를 이용해 달라는 말이겠다. 하지만 항공사의 의도가 어떨든, 그 문구 중에 눈에 띄는 불만한 글이 있는데, 泰山不辭土壤(태산불사토양) 河海不擇細流(하해불택세유)이란 문장이 바로 그것이다. 사기의 이사열전 중에 나오는 말로 태산은 흙을 사양하지 않고, 큰 강과 바다는

광고에서 배우다

물줄기를 가리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 항공사의 광고를 보다가 뒤이어 뉴스에서 쏟아지는 교육정책에 자못의 구심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의 말이지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백 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라는 말일 텐데,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은 그런 면에서 참으로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어찌 보면 하해 같은 우직한 정책과 세류 같은 다양성은 하나일 것이다. 요즘이야말로 바로 그러한 다양성을 추구하며 멀리 보는 교육정책이 절실할 때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 11월30일 광주학생 교육문화회관 공연장에서는 하지만, 큰 행사가 남다른 주목 없이 조용히 치러졌다. 광주예술재교육원의 개원식이 바로 그것이다. 학부모와 신입생들은 상기된 얼굴로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고, 초청된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밝은 모습으로 개원식을 축하하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모든 지도자들은 미래를 진단하면서 문화 예술의 중요성을 말하지만, 정작 이를 실천하는 이는 보기 드물다. 그런 점에서 이번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예술재교육원의 시작은, 작지만 작은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과 다를 바 없다. 그곳 개원식에 모인 모든 분들과 음악과 미술 분야의 영재로 뽑힌 23명의 신입생과 지도하는 14명의 교수진은 그 목표를 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술의 영재가 빛을 발한 산업과 결합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 분명하다. 이미 광주는 충분히 그러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어 미래가 기대된다. 광주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중심 U-러닝교육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하나로 음악과 미술분야 영재 육성을 위해 운영될 예술재교육원이 도입되었다. 광주 교육이라는 큰 물줄기에서 보면 앞으로도 더 다양한 시도와 계획들이 더해져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흐름이 되고 바다에 이르는 큰 결과에 닿아야 할 것이다. 그 광고에 이런 문구도 등장한다. 등고자비(登高自卑). 낮은 곳에서부터 높이 올라가듯이, 만사에 반드시 차례를 알아야 함을 말한다. 이제 광주 교육이 또 다른 싹을 막 움트려 하고 있다. <광주 석산고등학교장>

자율방범대 봉사활동 지자체 지원 있었으면

우리 사회 주변에는 경찰의 부족한 인력을 보조해 지역치안의 공백을 메워주며 일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있다. 이들은 주로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그야말로 자발적인 봉사단체이다. 자율방범대원들은 지역의 치안 취약구역이나 우범지역에 집중순찰을 하고 있으며 경찰관들이 잘 모르는 세세한 지역까지 훤히 알고 순찰을 해 주어 경찰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방범대원들에 대한 운영비 특히, 차량의 유류비나 기타 활동비

無等鼓

요즘 일본 외교의 화두는 '쿨 재팬(Cool Japan)'으로 요약된다. '쿨 재팬'은 만화·애니메이션·게임·패션 등 일본 대중문화를 통해 전 세계에 국가 브랜드를 알리고, 이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시키겠다는 21세기 국가전략을 말한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큐트(Cute) 파워'를 전파하는 임무를 맡은 '가와이(カワイイ·귀엽다) 대사'를 임명하고,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만화·애니메이션 관련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케이블 TV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일본 만화 '도라에몽' '호빵 맨' 등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일본문화가 우리의 일상을 잠식한 지는 이미 오래 전 얘기다.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다문화 신드롬을 생각하면 일본문화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인사 명단발표에 따른 논란에서도 보듯이 일본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위협스럽다.

일본은 '사무라이의 나라'로 불린다. 사무라이라는 용어는 본래 귀인(貴人)을 가가이에서 모시며 경호하는 사람에서 출발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일본의 정서 또는 일본열도를 뜻하는 보통 명사로 바뀌었다. 세계야구대회인 WBC를 제패한 일본 야구대표팀도 '사무라이 재팬'이었고, 쿨 재팬도 사무라이 정신이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문화의 횡포도 문제지만, 이번에는 사무라이 사채자본이 밀려들어 오면서 우리 서민금융시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모양이다. 우리의 소액대출시장의 70%를 독식하는가 하면 한 업체는 순익의 12%를 일본 본사로 송금하기도 했다. 일본문화가 우리의 일상을 잠식한 지는 이미 오래 전 얘기다. 우리 사회에서 불고 있는 다문화 신드롬을 생각하면 일본문화라고 예외일 수는 없지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친일인사 명단발표에 따른 논란에서도 보듯이 일본문화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위협스럽다. /이종대 사회2부장 jilee@kwangju.co.kr



사무라이 재팬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임명재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가수 안치환은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했다.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로 사랑하는 너와 나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라고 했다. 우리는 학교에서는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대한 소중함을 배우고 사회에 진출하면서는 거의 모든 직업에서 소비자의 만족을 최우선 하면서 역시 사람이 초점을 맞추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정치도 역시 국민을 섬기면서 국민의 삶을 살찌우고 편안하도록 하는 것이 절대 목표임을 누구나 알고 있다.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신과 정책은 결국 국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시사각각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지켜보면 그러한 믿음에 의심이 가게 된다. 우리는 4대강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다뤄지는 그런 현실의 중심에 서 있다. 왜 4대강 개발이여야 할까?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였기에 우리도 4대강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면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또한 이대통령의 청계천에 이은 두 번째 업적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일까? 뉴딜정책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 그 정책의 핵심은 노동자와 농민을 지

원하고 사회보장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으로 사회의 약자들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은 자생력을 통한 경제회복을 추구하였다는 것이다. 2002년 브라질의 경제가 매우 힘들었을 때 노동자 출신의 플라대통령이 당선되었고, 그는 인구의 40%에 육박하는 빈곤한 농민들에게 집중 투자를 하였다. 많은 이들이 그 결과 자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모여 사는 곳에 돈이 돌게 하였다.

브라질의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서 단단히 한몫을 한 것이다. 부자에게 감세혜택을 주면 백화점과 대형 마트의 경기가 살아나지만 정작 살아야 할 서민들의 경기는 여전히 고봉스럽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차단되고,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겨울 동안의 일자리 지원 사업이 중단되어 그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질 때, 엄청난 금액의 사교금이 없다면 더 나은 직업을 선택하기 힘든 사회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한계에 이르러 갈 것이다. 수출도 더 적게 하고 노동시간도 훨씬 짧은 나라가 더 안정적이고 선진국이 되는 이유는 사람을 꽃보다 아름답게 여기는 국가 지도자의 철학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국가로부터 존중받고 싶다. <약사·2005년 12월 수성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장애인 주차장 압채주차, 장애인 편의 '나물라라'

며칠 전 마트 주차장에 갔는데 빈 공간을 찾기 위해 차를 돌리던 중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댄 개담에 휠체어 장애인 주차를 못하고 애를 먹고 있었다. 간신히 빈 공간을 찾았지만 그곳은 일반 차량 주차 공간이라 무척 좁았고 그 장애인 휠체어를 끌고 나오지 못했다. 마트 주차장 관리원을 불러 장애인 공간에 차를 주차한 차를 휴대폰으로 연락했으나 오지 않았고 결국 장애인은 휠체어를 뺐 수 없어 차를 다시 빼낸 뒤 차가 오는 쪽에 차를 세운 후 간신히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신재민·목포시 수강동>

지금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버섯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거나, 일반인들이 장애인 공간을 합부로 침범해 장애인들이 이런 고충을 겪는다. 또한, 종종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가능'과 장애가 있어도 굳이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아도 되는 경증 장애인의 '주차 불가'으로 구분하는 했지만 이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나 혼자의 이기심과 편리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불편과 스트레스는 물론 자기감마저 준다는 사실을 알고 매너 있게 행동하자.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F A X 227-0118)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34	여론제작부 2200-679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사회 1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사회 1부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